

## 채만식 소설 『탁류』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박철웅\*

### A Study on the Sense of Place in Chae Man Sik's Novel *Takryu*

Chul Woong Park\*

**요약 :** 이 논문은 개항장 군산을 무대로 한 소설 채만식의 『탁류』에 대한 장소성 연구이다. 먼저, 문학지리학의 관련 이론과 장소성에 대한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소설 『탁류』에 묘사된 장소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장소를 선정한 다음, 물질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와 상징이라는 장소 요소를 중심으로 장소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탁류』의 다양한 장소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금강은 탁류의 상징으로 그 역사성이 암시된 장소성을 보였다. 둘째, 항구로서 군산은 쌀의 생산량이 풍부하여 일제에 의해 '쌀의 군산'이란 상징성과 장소로서 '풍요성'을 갖게 되었지만, 반대로 '빈곤의 군산'이라는 장소성도 함축하고 있었다. 또한 일제 식민도시로서 거주민의 이질성에 의한 도시구조의 장소적 '이중성'을 노출하였다. 미두장은 공적·사적 장소로 합법적 도박 장소이면서 일부의 타락과 부패의 장소성을 보였다. 둔벵이의 거주지는 이중적 거주성과 갈등과 애정이 교차되는 장소성을 갖는다. 집은 가정으로서 삶의 기초 단위로 편안과 안식처를 주지만 생명이 위협당하는 불안전성을 내포한다. 동시 미래의 희망적 장소성을 예견하기도 한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군산의 토착민이 아니고 이주민들로서 장소애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들의 거주지와 집을 통해 부유하는 '장소상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장소성들은 객관적이고 논리실증주의적 지리학 접근으로 밝혀지지 않는다. 따라서 문학적 접근에서 인간주의지리학 관점은 중요하다. 특히, 문학 텍스트의 직접적인 독해를 통한 장소성의 탐구는 문학과 지리학의 간극을 좁히는 상보성이 기대된다.

주요어 : 소설 『탁류』, 장소성, 장소 요소, 장소상실, 인간주의지리학

**Abstract :**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sense of place in Chae Man Sik's novel *Takryu*, of which the setting was the open port city of Gunsan. Primarily it reviewed theories of literature geography and discussions on the sense of place. It then selected key places by extracting place-descriptive texts in the novel. Subsequently the paper examined the sense of place in these places by analyzing principal elements of place including material environment, human activity, meaning and symbol.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eumgang River was a symbol of turbidity which implied a historically chaotic world. Second, although Gunsan was symbolized as a rice-rich place because of its functioning as a Japan's colonial base for food production, such symbolic representation was simultaneously contrasted with the 'poorness' of the city's life-world. Also, the novel re-presented the contrast by illuminating dualistic urban structure of the colonial city in which heterogeneous people were resided. As a public and private space, Midujang is a public and private place, a place for legal and rotten gambling, but also shows placelessness. Dwelling places have a duality of place where conflict and affection intersect. Homes, as a basic unit of life, provide comfort and shelter, but contains insecurity that threatens life. At the same time, it predicts the hopeful sense of place of the future. Finally, characters in the novel were described as not indigenous people of Gunsan but migrants who failed to have love for place or topophilia. Migrants' floating placelessness was confirmed through dwelling and home. This research conclusive suggests that the sense of place cannot be well revealed from objective and positivist geographic approach. Therefore, a significant contribution could come from humanistic geographic approach in literary studies. It particularly emphasizes that the exploration on the sense of place through textual analysis of literature is expected to complementarily close the gap between literature and geography.

Key Words : *Takryu*, Sense of place, Elements of place, Placelessness, Humanistic geography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arkcw@jnu.ac.kr)

## I. 서론

소설에 있어 인물, 사건, 배경, 플롯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작가들은 장소, 경관(풍경)과 관련된 느낌, 관점, 가치, 태도, 의미를 전달한다. 처음에 지리학자들은 이런 연구가 문학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가들이 과학적 분석으로는 볼 수 없는 장소와 경관들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문학지리학 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 있어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 이를 연구하는 문학자, 지리학자 모두 장소, 경관과 관련이 있다.

원래 지리학자들에 의한 문학작품의 연구는 문학지리학이라고 불리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Noble and Dhussa, 2009).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텍스트를 통한 인문지리학 내에 경관에 대한 재현적 접근이 활발해지면서 인문지리학자들은 주로 텍스트를 사용하여 경관을 은유하였다. 이후 경관을 '의미를 생성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자'로 간주하면서 경관이라는 개념을 텍스트로 새롭게 변화시켰고 이를 통해 경관 표현에 나타난 숨겨진 지배적인 의미를 밝혀내었다(Bellentani, 2016).

반면 문학은 허구의 세계를 그린 텍스트이지만 소설과 시 등의 작품 속에서는 자연, 사회, 문화적 내용과 의미를 담고 전달하고 있다. 이는 Said(1993, 박홍규 역, 2011)는 소설에서 제국주의적 태도, 언급, 경험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처럼 소설 텍스트는 문하뿐 아니라 지리학 등 타 학문에서도 주요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지리학의 경우, 인간주의지리학자 Tuan(1978)은 넓은 의미에서 문학이란 글로 씌어 진 자료로 광고 전단이나 신문에서부터 과학 저널의 콘텐츠 및 시 선집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어떤 문학이든 공간, 장소, 자연 및 환경 같은 포괄적 주제로 말하면 '지리학적'이라고 보았다. 스칸디나비아 경관연구 지리학자 Olwig(1981) 역시 고문학은 현실을 보다 경험적으로 구성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보고, 우리는 이를 통해 씌어진 텍스트보다 더 많은 것을 독자에게 경험하게 하는 매력과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장소나 지역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은 문학을 포함한 각종 글쓰기였고 사람 대부분은 그 장소에 대한 지식을 실제의 '리얼리티'로 느끼기에 앞서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는다(Crang, 1988:44). 이처럼 지리학에서 허구인 문학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은숙(1992)은 학문영역에서 문학작품을 취급할 때는 문학작품이 사실이나,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다만 그것이 작가가 살아온 시대의 경험을 반영하고,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체화시켰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접근해야 한다. 즉 문학작품은 문학이 창출된 시대 안에서 인간이 지닌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 이런 요소들은 관찰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학자들의 관심대상이 된다.

채만식의 『탁류』는 조선일보에 중일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인 1937년 10월 12일부터 연재되어 익년 5월 17일까지 198회에 걸쳐 발표된 연재소설이다. 1939년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가 발간 중지되었다. 『탁류』의 저자 채만식은 조선일보의 연재하기 전 예고 기사에서 자신의 소설을 이렇게 설정한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극히 선량한 여자 하나이 처음 인생을 스타트하자, 세상이 탁함으로써 억울하게도 가추가추<sup>1)</sup> 겪는 기구한 「생활」을 중심으로 시방 세태의 아주 적은 몇 귀퉁이를 그린 게 이 소설이다.

(조선일보, 1937년 10월 8일자)

이처럼 『탁류』가 어떤 특정 시기의 습속이나 세태(世態)를 그린 소설이지만 지리학은 장소의 연구라는 Cresswell(2004, 심승희 역, 2012)이 말한 것처럼 일종의 장소 혹은 지역소설이라 볼 수 있다. 『탁류』의 장소들은 숫자가 아닌 실제 이름이 사용되며, 사물의 재배치를 통한 장소화가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경이 되는 당시 군산은 이미 주변 서천, 서울과의 장소적 관계를 맺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관련해서는 멀리 일본 오사카와도 실시간 관계가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간과 장소의 다양한 관계성도 고찰할 수 있는 소설이다.

이에 본 논문은 지리와 문학과의 관계, 문학지리학의 동향, 장소와 장소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탁류』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씌어 진 대화나 해설의 텍스트에서 생활경험이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각각의 장소의 묘사를 통해 장소성을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3년 창우문화사의 『탁류』와 조선일보에 연재된 내용을 모아 주석을 단 우한용(1997)의 주석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소설의 텍스트에서 장소와 관련된 대사를 독해하고 장소 관련 내용을 추출한 다음, 이

장소들의 장소성을 Relph(1976), Tuan(1978)을 토대로 구축한 '물질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와 상징과 같은 세 가지 장소 요소의 틀로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이러한 장소 요소들은 배경으로서 금강과 군산의 식민 도시의 경제와 도시구조의 이중성의 의미와 이에 장소에 종속된 조선인들의 삶의 생활상과 관계성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정주사와 초봉이의 삶의 공간으로서 거주지 둔백이와 그들의 집에서 나타나는 장소감과 장소 상실에 의한 장소성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들은 『탁류』의 전체의 서사를 떠받치는 등장인물들의 서사 공간이란 점에서 중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일반 집단이 가지는 장소성의 객관화나 일반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1930년 중반 당시 군산에서 그려지는 등장인물들의 경험을 통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장소성을 통해 당시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점에 비중이 있다. 의미의 해석 등은 실존적 현상학적 관점을 가진 인간주의지리학의 입장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소설 내용의 여러 번의 독해를 통한 텍스트 중심으로 묘사 내용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기본과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학적 토대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추구하는 일반화나 법칙 추구가 아니다. 다만 소설 속에 나타난 장소와 경험의 현상을 지리적 관점에서 장소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와 나아가 지리와 소설이 어떻게 결부되어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법적 접근이기도 하다. 물론 텍스트 자체만의 분석 이외에 장소와 장소의 실제성을 고찰할 수 있는 당시의 여러 실증적 자료(당시 신문기사와 광고, 삽화, 지도와 일본 문헌) 등을 통해 장소성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러한 접근의 의의는 1차적으로는 장소와 경험의 현상을 다룬 문학 소설과 지리학의 새로운 관계적 시각과 함께 두 학문 간의 간극과 차이를 보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이다. 즉, 문학이 놓친 지리적 실재에 기반한 장소성의 의미를 되살려 그 의미와 차이를 보다 확대하여 문학에서 지리학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 보는 것이다. 문학과 지리학처럼 문학의 바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리학과 문학의 관계를 상보적으로 접근할 때 더욱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장소성을 풍부히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치중하여 객관화나 합리성 및 엄밀성의 추구하는 기존 지리학적 접근이 아니다. 오히려 문학과 지리학 양자가 서로 볼 수 없는

외연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묘사된 텍스트 중심의 직접적인 독해를 통해서 지리적 의미와 장소성을 연구한 사례는 지리학에서 흔치 않다.

## II. 이론적 검토와 연구 동향

### 1. 지리학과 문학

Porteous(1985)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지리학자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과는 주로 19세기 초략장소와 관련된 소설들의 사례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 이후 이론적, 계량적, 행동적 신지리학의 과도한 확대와 확장의 시기에는 소설의 관심은 낮고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다. 반면, 1960년대 후반, '인간주의 지리학'의 기치 아래 옛날의 이해관계가 정당화되면서 비로소 지리학자들의 문학적 관심은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특히, 실존주의와 현상학에서 나온 휴머니스트 작가들에 의한 문학의 지리학적 해석에 새로운 개념들이 선보였다.

지리학의 용어는 학문분야로서의 이론과 실제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계의 공간, 장소, 현상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어왔다. 반면, 문학의 용어는 가끔 문학 연구와 관련되어 학문으로 사용했지만 보다 일반적으로는 일차 자료로서 문학 텍스트를 언급하는 것이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이런 양자의 차이에 대해 Daniels and Rycroft(1993)는 문화지리학과 문학비평의 최근 발전을 고려한 방법으로 '지리와 문학' 간의 관계성을 재고하여, 지리와 문학을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일관성을 가진 두 분야의 합이 아니라, 소설, 시, 여행가이드, 맵 및 지지(地誌) 등의 복합적인 중첩과 상호연관성을 가진 텍스트적 장르 분야로 간주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은 지리학과 문학비평의 학문적 결과를 한데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리학자들에 의해 창출된 학문적 텍스트와 작가(소설가, 시인)들에 의해 창작된 문학적 텍스트들을 비교함으로써 중첩되는 영역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 중 Pocock(1981)의 인문주의적 접근 또한, 문학 연구보다는 문학적 텍스트에 초점을 맞췄다. 문학적 비평의 보편적인 분야는 문학과 인문지리학, '예술 또는 사회과학의 만남'으로 보았다.

인간주의 지리학자인 Tuan(1978)은 지리학자들은 지

리학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지리학적 쓰기는 보다 뛰어난 문학적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고, 문학은 지리학자에게 원천 자료이며, 그리고 문학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준다는 세 가지 점을 제시하였다. 지리학적 글쓰기 예로 Payne(1898)이 쓴 초등학교 지리 교과서를 보면, 땅에 대한 기술에서 문학적 문체와 서술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디 위를 걸어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땅을 밟는가? 우리 발밑의 땅은 어떤 느낌일까? 왜 우리는 거기에 빠지지 않을까? 우리가 걸을 수 없는 무르거나 단단하지 않은 땅 위의 어떤 곳에 다다른 적이 있는가? 무엇이 땅에 있는 이 물웅덩이를 만들까?

우리는 종종 지면을 땅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는 육지에 있거나 물 위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견고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만약, 수영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익사할지도 모른다.

(Payne, 1898:7)

이러한 지리학의 문학적 기술의 사례가 있는 반면, 프랑스 세갈렌(Segalen)<sup>2)</sup>의 글에서도 지리학과 문학은 결합한다. 최민(2019)에 따르면 그의 에세이 「장강」에서 지리적인 기술에 주안점을 둔 텍스트이지만, 우리는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와도 같았던 이 거대한 하천이 결국 인간과의 만남을 향해 열리는 것을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오렌지처럼 둥근 거대한 제국을 제의 지대로 아치를 그리며 관통하며”, “열일곱 지역과 티벳 땅의 중심이자 여왕인 사천의 한 가운데”를 흐르는 이 강은 모든 큰 하천들이 그렇듯이 “자기 이외의 다른 강을 알지 못하여”, 지류들이 모여들어 그 힘을 확인할 때 “마치 자신의 가장 큰 능력을 과시하는 인간”과 같은 모습을 띠고 객관을 떠난 주관적 감성이 기술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연도 기술에 따라 인문화되기도 하고, 문학이 되기도 한다. 또한 Pocock(1981)이 주장대로 문학은 인간의 모든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인간을 취급하는 어떤 학문이나 문학적 통찰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지리학적 글쓰기도 문학적일 수 있다면 문학이 전적으로 문학이나 문학 연구자일 수만은 없다고 본다.

지리교육에서도 한반도의 고위평탄면을 다룰 때 그 무대가 되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을 고위평탄면과 무상일수 등과 메밀꽃과의 관계를 통해 그 서사 공간의 이미지와 현실적 장소감을 연계시킬 수 있다면 이는 문학이 지리학의 이해로 지리학이 문학의 이해로 상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연구 사례로는 도시답사에서 문학과 지리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오감각을 통한 다각각적 경험의 질적 접근을 통해서 도시의 이미지와 장소감을 새롭게 한 방법이 제시되었다(박철웅, 2014). 특히, 「경관」, 「장소」, 「이미지」로서의 무등산 읽기의 연구(박철웅, 2020)에서도 문학 자료인 유산기(遊山記)와 같은 답사문학을 통해 무등산의 과학적인 접근 이외의 경관에 대해서 공간적 기술이 가능하다.

이렇듯 문학의 주관적 경험의 묘사와 해석을 통해서 지리학의 장소성이나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Mallory and Simpson-Housley(1989)도 소설가나 시인에 의한 지리적 장소의 좋은 자극적인 묘사는 문학과와 지리학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렇듯 문학이 사람들의 지리적 상상력을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장소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장소 및 공간적으로 체계화되는지도 일부 말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지리학의 지평이 열려있다.

## 2. 장소와 장소성

장소 역시 공간과 함께 생활세계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공간과 환경을 바라본 최초의 관점은 20세기 말경부터 등장한 ‘장소’의 개념이었다. 이를 실제의 환경과 경관의 문제에 적용시키고자 했던 작업개념이 현상학을 기반으로 한 ‘장소성’ 또는 ‘장소 정체성’이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장소에 관련된 이론은 지리학자 Relph(1976)에 의해 체계화되었는데, 기존의 하이데거류의 실존적 ‘장소’의 개념을 발전시켜, 20세기 모더니즘의 합리와 기능 위주의 ‘공간’ 개념이 가지는 인간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Crang(1988)은 장소를, 장소는 공간의 일부가 인간(사회)에 점유되어 공유하는 경험을 시간을 두고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다고 보았다.

오시히로 나오키(大城直樹, 2001)에 따르면, 장소라는 말을 개념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인간주의지리학자라고

말한다. 그 중 Yi-Fu Tuan과 Edward Relph가 대표적이며, 그 외 Anne Buttimer, D. Pocock나 J.D. Porteous도 소박한 인간주의자로 보였다. 이러한 인간주의지리학자들은 ‘공간환원주의’의 대세로 인한 인간 부재의 지리학에 휴머니티를 회복하고자 지역이나 공간 대신 ‘장소’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 측면을 대상으로 인간이 생활공간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현상학적 감각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 Relph(1976:287)는 우리가 경험하는 지리에는 다양성과 의미에 의해서 특징지워진 장소의 지리가 있고, 유사한 경관이 끊임없이 이어져 미로와 같은 무장소의 지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장소는 단순한 의미 있는 공간 또는 위치에서부터 보다 복잡한 다른 장소와 연결된 고유한 자연과 인문적 특성을 가진 영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의가 따르는 중층성을 주장한다. 한 마디로 장소는 조직된 의미의 세계인 것이다.

장소를 점유하는 인간들은 장소에 대하여 어떤 감정적 연계를 느끼거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소애나 장소상실과 같은 장소감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장소의 특성을 부여받은 장소는 장소성을 갖게 된다. 즉, 장소는 공동체의 문화적 감성이 부여되면서 장소성을 얻게 되고,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의 주요 부분을 장소감으로 구성(김덕현, 1999)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Relph(1976:4) 역시 장소감은 정확한 정의를 기대하는 단순 공식적 개념이 아니며, 그 명확화는 정밀을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정의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장소성이나 장소감은 우리나라에서 영어 표기에서 ‘sense of place’, ‘placeness’, ‘the place’, ‘place’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홍성희 등, 2011). 또한 ‘place identity’, ‘locality’와 같은 의미로도 혼용되어 학문 간 애매성도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 속의 장소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개념으로 인간주의지리학에서 말하는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면서 문화적 감성이 포함된 장소감이 비롯해 장소애와 장소상실로 표출되는 장소성(sense of place)으로 보고 기술하겠다.

### 3. 연구 동향

지리학에서 말하는 문학지리학이란 용어는 문학 자료에 지리적 접근을 하는 인문지리학 내의 하위 분야를 가리키고 있지만, 비판 문학지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문학 연구 내에 존재한다. 최근에 문학지리학은 문학 연구와 문학 이론에 참여에 있어 더욱 활발하게 학문 간 융합을 이루어가고 있다(Hones, 2008). 지리학의 전통에서 문학지리학의 연구의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Lando(1996)은 문학 자료의 지리적 해석에 관한 문헌학적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실제의 경관과 문학적 경관과의 관련성, 장소감 이해, 안착(rooting)과 추방(uprooting)의 개념, 특히 ‘시’에 나타난 본질인 인스케이프(inscape)의 정의 및 영역 의식에 대한 정의로 유형화된 5개의 주제로 지리학과 문학작품 간에 존재하는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이은숙(2010)은 문학작품은 문학이 창출된 그 시대의 인간적 삶의 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찰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학작품을 지리학의 연구대상과 수단으로서의 크게 구분하여 그 동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문학작품을 연구대상으로 함에 있어서 첫째로, 문학작품과 지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 둘째로, 문학작품을 통한 내부자와 외부자의 해당 지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으므로 내부자의 사회적 관계, 상징 등의 연구, 셋째, 문학작품을 통한 장소성의 연구로 동향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이런 동향에 따르면 셋째인 소설의 장소성 연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연구 수단으로서 다루는 연구는 첫째 문학작품이 지리학적 가설의 확립과 타당성 검증의 장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둘째 문학작품을 장소나 경관, 지역에 대한 지각과 인지의 인간중심적 이해를 위한 자료로 다루는 수단으로서, 셋째, 문학작품을 객관적 사실(정보)의 수집이나 지리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향으로 살필 수 있다.

문학지리학도 이전에 Geike가 1898년에 처음으로 지리학적인 연구에 문학작품을 이용함으로써 효시가 되었다고 본다(이은숙, 1992).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문학지리학에서 문학지리학의 접근이 있었다. 특히 이은숙(1992; 1993; 1996; 1998; 1999)이 선두에 섰으며, 이어 심승희(2001; 2012), 김진영·신정엽(2010), 김진영(2011), 박세희(2013), 오동훈(2017), 이동민(2019; 2020) 등의 연구 등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문학과 사회과학, 건축 쪽에서는 상당수의 문학지리학 관련 연구 결과가 장소와 공간, 장소성 등을 키워드로 하여 지리학보다 더 많은 연구

들이 있다(프랑코 모레티, 1995; 황지선, 2012; 고성혜, 2016; 권혁래, 2016; 박영은, 2017; 임형모, 2018; 송지선, 2019; 강효민, 2021).

문학지리학의 연구 동향을 통해 지리학과 문학이 그간 어떻게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런 관계는 지리학이 새로운 연구대상인 인간세계를 마주하는 것이다. 지리학이 말한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라는 것도 결국, 인간 주체와 환경(좁혀서, 공간과 장소)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학적 존재성과 관계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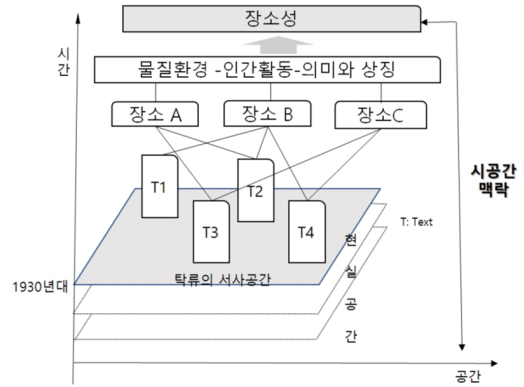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과정의 구조

### III. 연구 방법과 과정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소설 『탁류』는 군산을 비롯하여 서천, 유성, 서울과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부터, 미두장, 선창, 개복동과 둔뽕이, 토막집, 신희집, 유성온천, 서울집, 백화점 등과 같은 주인공들의 직접 경험이 관여하는 장소까지 다양한 스케일을 가지고 묘사된다. 또한 현재 『탁류』는 군산의 장소마케팅과 지역정체성의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소설이다. 이런 주관적 소설의 상상적 공간과 장소가 보여주는 장소성과 이미지를 기존의 지리학적 연구 방법으로는 사실 포착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설에서 보여주는 인스케이프와 장소성 및 감각들을 포착하려면 인간주의지리학에서 접근하는 장소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 방법은 우선 소설의 텍스트를 여러 번 읽어서 전체 소설의 조망과 시대성 및 통찰성을 파악을 한다. 그리고 장소의 묘사들을 모아서 분류하고, 관련 내용의 대표적 장소성을 추출한다. 이는 Relph(1976), Tuan(1978)과 같은 인간주의지리학자의 장소론에 기초하여 ‘물질적 환경’, ‘인간 활동’, ‘의미와 상징’과 같은 세 가지 장소의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장소성들의 의미와 상징적 해석은 주관과 객관의 차이와 부분과 전체의 연계 속에서 당시의 시대성과 실제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소설의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소설 외적 신문기사와 광고, 일본 문헌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를 동원하여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묘사된 장소애나 장소상실을 포함한 장소감이 표출되는 장소성들은 개별적으로 해당 묘사들을 자료로 계시하고 그 현상학적 감각의 경험을 의미와 상징을 통해 맥락적으로 해석하여 고찰한다.

장소 요소로 통해 고찰되는 장소들은 스케일의 크기에 따라 배경으로서 금강과 군산, 그리고 활동과 생업의 공적 및 사적 공간으로서 미두장, 마지막으로 삶의 기초 단위이면서 주관적 경험과 감각의 장소로서 주거지와 사적 공간으로서 집이다. 이 장소들은 『탁류』의 전체 서사 구조를 떠받치는 등장인물들의 서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장소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과정은 우선 물질적 환경으로 식민도시 군산의 지리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다음으로 인간 삶의 영위를 위한 활동의 장소로서 당시 군산의 심장부로 묘사된 미두장을 중심으로 장소성을 해석한다. 끝으로 인간 삶의 지속을 위한 거주(dwelling)의 기본 단위인 거주지와 집(home)에 대한 장소성을 순서대로 고찰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 방법과 연구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장편소설인 『탁류』를 총체적으로 장소성을 한눈에 분석하고 파악하기 어렵다. 단계적으로 장소의 묘사들을 통해 고찰하되 소설 전체의 서사공간을 감싸는 시공간적 맥락성과 이와 관련된 실증적 자료들이 함께 고려된 총체성을 위한 과정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주로 일반 집단이 가지는 장소성의 객관화나 일반화는 지양한다. 대신, 1930년 중반의 군산이라는 공간과 장소에서의 인간 경험이라는 각각의 경험과 감각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주관적이면서 개별적인 장소성으로 보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소설 후반 배경과 무대가 서울로 옮겨가지만 여기서는 서울 자체의 장소성보다도 초봉이가 사는 서울의 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IV. 탁류의 장소성과 해석

### 1. 군산과 금강의 장소성

우선 작품 이해를 위해서 『탁류』의 저자 채만식과 당시의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탁류』의 저자 채만식의 1902년 군산시 임피면 동상리에 태어나 임피공립보통학교를 다녔다. 소설 『탁류』가 1830년대 후반의 실제 지명과 군산의 경관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당시의 군산의 지역과 장소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군산의 대표적인 문학 경관의 구성과 함께 장소마케팅 등의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탁류』는 소설을 뛰어넘어 현 군산의 장소의 정체성과 문화적 이미지를 재창출하는데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문학작품이기도 하다.

『탁류』에서도 군산이라는 지리적 장소는 개인의 삶과 무관하게 장소와 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사물화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많은 문학에서 실제의 공간은 문학의 텍스트를 통해 작가와 독자의 상상력이 새롭게 결합하고, 끊임없이 공간이 재구성되면서 장소성도 달리 나타난다. 지리학에서 주목하는 것은 실제 공간 자체의 이해를 통한 문학작품의 재구성고 독해이다. Duncan and Duncan(1998)에 따르면 '지각된 대상'으로서 경관은 주체인 인간에 의하여 문화적으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 배경이 독해될 수 있는 텍스트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군산의 자연환경은 금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 위치하면서 호남 들녘의 곡창을 안고 있는 서해의 출구라는 물질적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두 장소는 상호상관성을 갖고 새로운 발전과 혼탁의 장소성을 구축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즉, 군산은 『탁류』의 대표적인 장소이고 무대이다. 금강은 군산을 존재하게 하는 장소의 존재적 구조이고, 군산은 금강을 강으로서 살아있게 하는 장소의 관계적 구조이다. 소설 『탁류』가 이 두 공간의 배치와 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금강, 군산항, 군산시가 지와 삶의 이중구조에 관한 장소성은 다음과 드러난다.

#### 1) 금강 : 탁류의 상징

소설 『탁류』는 군산에 앞서 금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소설의 첫 번째 물질적 환경이다. 그 강이 토해내는 끝자락 언저리에 자리한 군산의 위치성도 장소의 요

소로서 물질적 환경이지만 그 상징성과 의미는 사뭇 다르다. 금강의 이야기를 소설의 맨 처음에 제시하는 것은 작가의 구성이지만 이것이 일반 소설의 배치에서는 보기 힘들다. 소설 서두를 장식하는 금강은 하나의 서사시(敍事詩)처럼 유장하게 묘사된다. 물질적 환경으로 탁류는 뿔물이 유입하는 감조구역에서의 보이는 상징이다. 당시 군산사회의 혼탁성은 은유하는 탁류는 바로 소설 전체를 주관하는 의미와 상징적 키워드이기 때문에 금강은 중요한 장소성을 갖는다.

금강은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유장하게 우리 민족의 인간 활동이 전개된 장소이자 바로 소설 제목 『탁류』의 시대성과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우리의 역사가 전개된 특히 패망의 한이 서린 백제의 터전의 중심부를 가르고 있다. 호남과 충청을 아우르는 거대한 물길로서 일찍부터 사람과 물자가 서로 이동하고, 논경지를 적시는 용수이기도 하다. 또한 금강은 하향으로서 전통의 장이 섰던 강경의 쇠락과 군산과의 발전을 대비시키기도 한다. 이런 금강을 소설의 서두에 배치하고 유장하게 객관화시키면서 의의를 암시하면서 작품의 큰 배경적 구조로 삼는다. 따라서 지리적 물질환경인 금강을 왜 서두에 배치하고, 어떻게 서사화시키고 그 의미와 상징성이 갖는 것은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 소설의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탁류』의 금강은 집단 모두의 일반 장소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읽는 독자의 흥미를 통해서 더 많이 파악하게 된다. 묘사된 부분은 저 멀리 원류에서 시작하여 면면히 이어지는 흐름은 민족의 역사성이고 맑은 금강이 그 끝자락에 혼탁해지는 뿔물의 탁류가 되어 있음은 일제 강점기 식민지 수탈의 현실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강의 장소성이 일제의 식민도시 군산과 만나게 되는 곳에 이어진 역사의 단절을 상징하고, 일제 식민지 시대의 혼탁성으로 상징되어 나타난다. 군산과 금강의 장소성은 조선과 달리 경제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된다. 충청과 호남을 아우르는 곡창지대의 중심지를 흐르는 금강은 식량기지의 출구로서 새로운 장소성을 일제에 의해 창출된다. 그러면서 단순한 조운과 수군진으로 조선의 장소성은 상실되고 일제의 강으로 이익과 수탈의 장소성을 반전된다. 『탁류』는 이를 이렇게 풀어낸다.

백마강은 공주 곱나루(熊津)에서부터 시작하여 백제

(百濟) 흥망의 꿈 자취를 더듬어 흐른다. 풍월도 좋거니와 물도 맑다. 그러나 그것도 부여 전후가 한참이지, 강경에 다다르면 장군들의 흥청하는 소리와 생선비린내에 고요하던 수면의 꿈은 깨어진다. 물은 탁하다. 예서부터 옹계 금강이다. 향은 서서남(西西南)으로 밋밋이 충청·전라 양도의 접경의 골을 타고 흐른다.

이로부터서 물은 조수(潮水)까지 섭슬러 더욱 흐르나 그득하니 벽차고, 강 너비가 훨씬 퍼진 게 제법 양양하다. 이름난 강경 벌은 이 물로 해서 아무 때고 갈증을 잊고 촉촉하다. 낙동강이니 한강이니 하는 다른 강들처럼 해마다 무서운 물난리를 휘몰아 때리지 않아서 좋다. 하기가 가끔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에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黃海)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 째 얼러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으로 대처(大處 = 市街地)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群山)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

(채만식, 1983:12; 이하 같은 책)

이렇게 금강의 흐름을 따라 내려오면서 시작되는 『탁류』의 이야기는 금강을 매우 사실적으로 지도 보듯이 조망한다. 바로 우리가 주목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강의 한 줄기가 자체가 아니라 처음과 끝의 과정을 천천히 훑어보는 장소의 조망성에 있다. 당시 소설 구성의 의미에서만 드러나는 『탁류』의 은유된 시점이기도 하다.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의미는 식민지 시대의 현재의 상황을 넘어 넓게 보라는 미래의 조망적 시점의 요구이기도 하다. 지리학에서 장소의 조망은 거시적이면서 미시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조선 개국조인 이성계와 얽혀 있는 뜬봉샘에서 금강은 발원한다. 작은 샘에서 개국해서 맑은 강물로 번창도 했지만 외세가 유입하는 바다를 만난 곳에 조선은 멸망하고 시대는 탁류를 맞이하는 것이다. 금강은 탁류로서 흘러내린 여러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의 역사를 투영하는 장소성을 갖는다. 소설의 묘사는 일제의 강점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기술하지 않으면서도 금강의 맑음과 탁함으로 조선의 흥망과 성쇠를 바라보게 하고, 당시 세태의 혼탁성도 암시하는 장치를 금강으로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탁류』는 이렇게 묘사한다.

이렇게 에 두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 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탁류째 얼러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는...

(1983:12)

금강은 백제가 망하는 날부터 숙명적으로 눈물을 받아 먹으란 팔자던 모양이다.

(1983:58)

이는 채만식의 깊게 잠재된 은폐된 장소성이다. 겉으로는 단순한 금강이지만 독자의 조망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혼탁의 장소성을 암시하는 서사 장치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작가는 철저히 『탁류』를 통해서 망해버린 조선말의 조선인이 갖는 아노미 현상과 일본의 지배에 따른 근대의 음영과 도덕성을 이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그런 의미성은 그 발원지에서 군산 하구까지 395.9km를 흘러 맞은 편 서천에서 마주한 강을 회한(悔恨)의 장소성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음 아닌 시대에 낙오된 조선말 세대의 인간기념물로 묘사된 등장인물인 정주사의 존재와 그가 회한을 갖는 장소성이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강심으로 똑딱선이 통통거리면서 떠온다. 강 건너로 아물거리는 고향을 바라보고 섰던 정주사는 눈이 똑딱선을 따른다.

그는 열두 해 전 용댕이 [龍塘] 에서 가권을 거느리고 저렇게 똑딱선으로 건너오던 일이 우연히 생각났다. 꿈꿈이 생각은 잦아지다가,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나았느니라 하면, 옛날이 그리워진다. 이윽고 기름기 없는 눈시울로 눈물이 된다.

(1983:17)

이렇듯 금강은 이 소설에서 단순한 강의 서술이 아니라 '탁류'를 상징하는 소설의 주제를 표상하는 키워드이며 암묵적으로 역사성과 당대의 혼탁성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지리적인 외부성과 내부성의 묘사를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서사이면서 장소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 2) 항구 군산 : 쌀의 상징

금강의 하구 언덕에 자리한 물리적 환경으로서 군산은 『탁류』의 대표적인 무대이자 장소이다. 소설 속의 정





(a) 1872년 지방도 군산진

출처 : 규장각.



(b) 1898년 전라도 군산약도(畧圖)

출처 : 文智恩(2019) 수정.

**그림 2** 지도상으로 본 군산의 공간구조 변화

주사, 초봉이, 남승재, 고태수, 장형보, 박제호 등 주요 등장인물들의 서사가 전개되는 장소이다. 항구 군산은 일제 강점기에 급속히 발전한 근대 식민도시이다. 쌀의 소유를 통한 빈부격차, 두루마기와 양복, 위생과 불결, 가난과 부자, 운수와 노름, 미두장의 애환, 성병, 부패 등 근대화되어가는 군산에서 혼재되고 혼종된 물질이 생활세계에 이미 깊숙이 침투된 장소성을 『탁류』는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항구 군산은 그러한 이야기는 잇은 지 오래다. 물화(物貨)와 돈과 사람과, 이 세 가지가 한데 뭉쳐 생명 있어 움직이는 조그마한 거인(巨人)은 그만한 피비린내나, 뉘 집 처녀가 생애를 잡친 것쯤 그리 대사라고 두고 두고 잊지 않고서 애달파할 내력이 없던 것이다.

해는 여전히 아침이면 동쪽에서 떴다가 저녁이면 서쪽으로 지고, 철이 바뀌는 대로 풍경도 전과 다름없이 새롭고, 조수 밀렸다 쓸렸다 하는 하구(河口)로는 한 모양으로 흐린 금강이 설새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거인은 묵묵히 걸음을 걸느라, 물화는 돈을 따라서, 돈은 물화를 따라서, 사람은 그 뒤를 따라서 흩어졌다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그리하여 그의 심장은 늙을 줄 모르고 뛰여, 미두장의 xxx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1983:249)

원래 군산은 조선 시대에 이미 교통의 중심지로 전라

도의 조세가 모이는 곳이었고 조창과 상업이 발달하고 객주도 많은 곳이었다. 그러다 군산은 1898년 5월 26일 한국·의정부 회의에 의해서 마산, 성진과 함께 개항된 곳이다. 1년 앞서 개항한 목포와 진남포의 경기가 좋아 집에 따라 추가로 군산 등을 개항했다는 것이 당시의 이유였다.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은 1898년 6월에 목포 영사 쿠미즈사부로(久水三郎)를 파견하여 향후 일본 거류지로 적당한 토지 선정과 함께 영사관 부지와 임시로 사용할 가옥 등도 조사토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대략 37만 평의 부지를 영사관 입지와 거류지를 그림 2처럼 구획하여 도면화 하였다(文智恩, 2019).

1917년 조선총독부 발행 지도(군산도폭, 1/1만)를 보면 이미 부청, 경찰서, 법원지청, 세관지서 등 관공서가 들어섰다. 항만시설, 전기회사, 미곡검사소, 정미소, 미두장(미곡취인소), 쌀창고, 어시장, 제염소, 상업회의소, 군산일보사, 조선은행, 18은행지점, 군산역 및 철도관사, 군산병원, 유치원, 소학교, 도서관 등이 세워지고, 군산의 제1수원지인 월명호수가 만들어졌다. 전주를 잇는 도로 전주통(全州通)과 함께, 1912년 이리의 호남선과 연결된 군산선 철도가 내항까지 들어오고, 강 건너편 서천은 정기선을 통해 매일 왕래하는 등 빠르게 근대 도시의 특성과 사회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변모해갔다. 동시에 본정(本町), 명치정(明治町), 대화정(大和町), 낭화정(浪花町), 소화동, 서빈정(西濱町), 동빈정(東濱町),



(a) 『탁류』 1회 삽화-군산의 선창

출처 : 조선일보, 1937년 10월 12일자 『탁류』의 삽화.



(b) 군산항에 쌓인 쌀더미

출처 : 연합뉴스, 2018년 1월 6일자.

그림 3. 쌀의 군산항 모습의 탁류의 삽화와 실제 사진

지금의 꾀보선창) 등 일본식 지명들이 이때 생겨나면서 군산은 쌀의 거래와 이동을 중심으로 시가지와 일본인 주거지, 그리고 조선인의 주거지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이중적 도시구조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군산의 개항에 따른 일본의 관심은 ‘쌀’이었다. 당시 산지 국가인 일본은 근대 산업화 발달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족한 주식인 쌀의 공급이 큰 문제 거리였다. 그 결과 개항하자마자 부지 선정을 위해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개항 당시 군산은 서남쪽이 작은 구릉성 산지와 곡지로 촌락이 자리하고 있지만 현 장미동 일대인 남동쪽은 갈대의 갯벌이었다. 개항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6월 초에 현재의 군산 구도심과 구항을 이루고 있는 영화동, 장미동, 중앙로 1가 일대를 중심으로 약 17만 평 이상을 조계지로 선정하였다. 군산은 이로써 새로운 식민도시의 공간구조화 되면서 새로운 장소성을 경험하게 된다(그림 3).

쌀이 만들어낸 항구 도시 군산의 쌀이 유출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 개항 이듬해인 1903년에 이전보다 15배, 1907년엔 34배, 그리고 1910년에 45배라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급격한 쌀의 대량 유출은 일본의 쌀값의 차이로 인하여 군산의 쌀은 엄청난 이윤을 안겨다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산의 쌀에 대한 장소성을 소설 『탁류』 이외, 1925년에 출간된 『군산개항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문화재청, 2011).

부근을 전망할 때 세관 옥상에도 해변(海邊)에도 도로에도 눈길이가는곳에는 도처에 300가마, 500가마, 1,000가마씩 산적되어 20만에 달하는 쌀가마니가 배열되어 정렬

하였으니, (...) 어 장하다 군산의 쌀이여!

(문화재청, 2011:540)

또한 1926년 제3차 군산항 축항공사 부잔교 준공식에 참가한 사이토(齋藤 實) 총독 역시, ‘お米の群山’ 즉, ‘쌀의 군산’이라고 경탄했을 정도로 쌀은 군산의 상징이면서 군산의 장소성을 표상하는 물질적 장소 요소이다.

일본은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쌀의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사회에서도 오키노 이와사부로(沖野岩三郎)가 1923년에 저술한 『薄氷を踏みて』에서 군산에 도달한 일본인들끼리 나누는 대화 일부를 통해서 ‘쌀의 군산에 대한 의미를 보다 실감 할 수 있다.

“이곳은 명치32년에 개항한 항구로 금강의 하구이고 남으로는 전주, 북으로는 강경의 양대 평원을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충청남도 양도의 중심이 되었지요, 해마다 무역액은 1천만원 이상이지만 그 십분의 육은 쌀이지요.”, “그러니까 조선의 사람들이 혹시 쌀을 일절 팔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일본인은 굶어 죽는다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겠군요.”

(沖野岩三郎, 1923:113)

일본에게 ‘군산의 쌀’이 일본의 쌀 수급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군산은 지리적으로 농지와 수리시설이 개발되어 한반도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곡창지대인 논산, 강경, 김제와 만경벌을 끼고 있는 쌀의 반출항이다. 이렇듯 일본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군산의 위치성을 미리 간파하고 식량자원의 공

간으로서 군산의 장소성을 일찍이 인정하고 있다. 특히 1921년부터 3차에 걸친 산미증산계획에 의해 급격히 감소한 일본의 농업생산력을 떠받치는 공간으로 쌀의 기지가 되었다. 193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해 생산된 1,672만석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891만석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는데 그중 전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300만석 이상이 군산항을 통해 나간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은 군산 내항의 만조선까지 갯벌과 갈대밭이었던 곳을 매립하고 축항지와 일본인 취락과 시가지를 조성하였다. 시가지는 일본식 조리(條里)제를 들여와 격자형의 가로체계를 구획하였고, 명치 시대 일본의 지방관제에 따라 정(町), 통(通) 체제로 재편하였다. 특히 군산은 호남 곡창지대에서 수확된 쌀을 정미 가공하여 일본으로 반출하는 기지이기 때문에 쌀의 이동을 위한 시설이 주를 이룬다. 즉, 도로(해안통, 전주통, 본정통)와 철도(군산선), 그리고 절대적 물리적 환경인 조석간만의 차를 극복하는 뜬다리 부두 시설까지 잇따라 건설되면서 군산에서의 쌀의 장소성이 강화된다.

### 3) 군산의 도시구조와 삶 : 이중성

개항과 더불어 군산은 일제의 조계지와 시가지 조성 과 쌀의 반출로서의 일본인의 유입과 그에 따른 조선 노동자의 유입 등으로 민족과 지역이 분화되는 도시구조의 이중성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소설 『탁류』는 한편으로 군산의 인구는 쌀과 관련된 미곡취인소 및 은행 등 금융경제 부분과 미곡의 정미, 하역을 위해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몰려든 조선인들은 일본인 조계지 밖의 개복동, 구복동, 둔율동, 스투포구 등의 구릉지와 고지대에 그야말로 게딱지같은 조선인 토막집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들어서게 되었다. 소설의 속의 지명인 둔뱀이, 콩나물고개 등의 실제 지명은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군산의 장소성이 이 근대의 식민도시의 이중적 특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설에서 정주사를 비롯 등장인물의 대다수가 군산의 토착민이 아니라 바로 주변 시골이나 돈을 따라 이주한 이주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장소성을 보여준다.

물질적 환경으로 군산의 맞은편 금강 건너의 충남의 서천도 똑딱선을 통해 군산과 연계되어 있다. 『탁류』의 등장인물 정주사와 박제호의 고향이 바로 서천 용당이다. 정주사는 농촌인 서천에서 공업과 항구 도시로서 군

산으로 유입한 이주민이다. 소설은 농민들의 무작정 이촌향도에 따른 빈민으로서 전형과 한탕주의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당시 군산은 주변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인구의 흡인요인을 가진 부와 '군산 드림'이라는 장소성을 꾸는 자들의 장소이다. 소설의 정주사도 농촌의 가산을 정리하여 평지 큰샘거리에서 살다가 점점 가난한 신세가 되어 둔뱀이와 같은 하층민이 거주하는 셋방살이로 내몰리는 이주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탁류』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그래서 정주사도 그렇게 했었다. 스물세 살에 그곳 군청에 들어가서 서른다섯까지 옹근 열세 해를 군서기를 다녔다. 그러나 열세 해 만에 도태를 당하던 그날까지 별수없는 고원이었다. 아무리 연조가 오래서 사무에 능해도, 이력 없는 한낱 고원이 본관이 되고, 무슨 계(係)의 주임이 되고, 마지막 서무주임을 거쳐 군수가 되고, 이렇게 승차를 하기는 용이찮은 노릇이다. 더구나 정주사쫄의 주변으로는 거의 절대로 가망 없을 일이다.

정주사는, 청춘을 그렇게 늙힌 덕에 노후(老朽)라는 반갑잖은 이름으로 도태를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보니 처진 것은, 누구 없이 월급쟁이에게는 두억시니같이 붙어 다니는 빚 [負債] 뿐이었다.

(1983:16-17)

군산은 쌀의 반출항으로서 하나의 플랫폼이다. 군산은 쌀로 인해 근대산업이 발전하였고 미곡취인소 및 은행 등 금융경제 부분에서 일본 본토와의 밀접한 연관성들은 일본인 중심의 새로운 구역과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조선인들의 국외자로 군산의 다른 이방인이 되었다. 미곡의 정미, 하역을 위해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유입된 많은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주거의 환경에 제약으로 집단화되었다. 일본인 거주지처럼 평지로 구획된 구역의 밖으로 내몰리면서 구획될 수 없는 구릉지를 중심으로 밀집하면서 시가지와 함께 주거지도 분화되는 장소의 이중성이 뚜렷해졌다.

더구나 군산의 쌀의 풍요로움이 '쌀의 군산'으로 장소성을 갖지만 이러한 풍요로움은 오히려 일제 강점기에 군산으로 이주한 국외자들에게는 가장 힘든 식량의 빈곤에 처하게 되는 주거와 함께 생활상의 이중성이 구축되게 된다. 『탁류』에서는 끊임없이 끼니 때우기가 힘들어 굶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에 풍요가 아닌 '궁핍의

군산이라는 또 다른 장소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천천히 콩나물고개를 넘어가는 정주사를 보면 당시 군산 지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광대뼈가 툭 볼거지고, 흘쭉 빠진 볼은 배가 불러도 시장만 해보인다. 기름기 없는 얼굴에는 오월의 맑은 날에도 그늘이 진다. 분명찮은 눈을 노상 두고 깜작거리는 것은 괜한 버릇이요, 그것이 마침감으로 풀이 더 궁상스럽다.  
(1983:15)

어제 저녁에 싸라기 한 되로 콩나물죽을 쑤어 먹고는 오늘 아침은 판판 굶었다. 시방 집으로 간댔자, 처자들의 시장한 얼굴들이 그래도 행여 하고, 가장이요 부친인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판이다. 다만 십칠 전짜리 현미싸라기 한 되라도 사가지고 갔으면, 들어가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식구들이나 기운이 나련만 그것조차 마련할 도리가 없다.  
(1983:19)

...그 대신 간혹 명님이네 집예를 들렀다가 끼니를 꿋이 지 못하고 있는 눈치가 보이면 다만 양식 한 되 두 되 값이라도 내놓고 오기를...  
(1983:92)

주인공 초봉이에게 나타난 군산의 이중성은 더욱 뚜렷하다. 비록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군산은 그녀에게 군산에 살면서도 내부적 외부인으로 살아가는 이중적 장소성으로 경험된다. 12년 전 고향 서천을 아버지를 따라 떠났을 때 초봉이는 9살 나이로 추정된다. 군산은 그녀에게 보통학교와 S여학교를 다녔던 학창 시절의 추억의 장소이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도울 수 있는 '제중당'이 있는 최초의 일터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더구나 가족의 희망양으로서 맘에 없는 결혼을 통한 일시 아내로서의 신혼집이라는 장소성을 꿈을 꾸지만 결코 초봉이에게 군산은 장소애착의 경험보다는 장소상실과 뿌린 뽑힌 장소감으로 기억되는 기대와 탈출이라는 이중적 장소성을 갖게 된다.

때एं 때एं 마루에서 시계 치는 소리가네 번째 나고는 그친다.  
초봉이는 시계 치는 소리에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

“그럼, 군산을 떠나야지!”  
하면서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앉는다. 그리 서두는 품이 방금 혼자말을 하던 대로 당장 옷을 차려 입고 뛰쳐나설 것 같다.

불쾌한 기억이 내 자신도 내 자신이려니와 남의 이목에서 오래오래 가지지 않을 이 군산이 싫었다. 더구나 형보가 있어서 위험하다. 하는 눈치가 앞으로 쉽지 않을상 싶으니 진즉 피하는니만 감지 못하다.

서울... 서울이면 좋을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좋으리라는 것은 몰라도 그저 막연히 좋을 상 싶다.  
(1983:181)

이렇게 초봉이에게 의미를 잃어버린 군산의 장소상실은 자신과 장소가 긴밀히 연결되고, 자아와 주변 세계 역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장소적 관계 설정이 무너진 의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소설은 또 다른 장소성을 묘사한다. 초봉이에게 군산은 가난함 속에서도 싱그러움과 미소를 맛볼 수 있는 다층적 감각의 장소로 나타난다. 역경 속에서 제중당에서 서울로 가지는 제안과 선대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랬다. 자연의 인문화를 통해 기쁨과 긍정의 장소성을 보여준다. 항상 구축된 물질적 환경이 아니라 새롭게 맞이하는 의미의 자연이라는 장소성에는 또 다른 긍정과 인간 삶의 희망성이 있음을 채만식은 작가는 자주 묘사하고 있다.

머리 위로 솟은 아카시아 나무에서 달콤한 향내가 가득 번져 내린다. 초봉이는 끌리듯 고개를 쳐들고 높다랗게 조랑조랑 매어 달린 아카시아 꽃송이를 올려다 보면서 절로 미소를 드러낸다.  
(1983:42)

이렇듯 군산은 '쌀의 군산'이라는 대표적 장소성으로 상징화되었지만 자연 자체의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순수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식민 시대의 개발과 활발한 경제 발달이라는 허울 속에 끝없이 구조화되는 이중의 공간으로 장소성을 갖는다. 특히 개항되자마자 일제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 계획적으로 시가지가 구축되는 조선 사람들의 공간과 장소적 감각한 호흡이 이어지는 이중공간으로 식민성을 대표하는 장소성을 드러낸다. 또한 군산은 토착민의 궁핍한 생활상에서 오히려 '쌀의 빈곤'이라는 대비적 장소성을 보여준다. 또한 군산의

외부성을 갖는 이주민들의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는 꿈의 장소와 장소상실이라는 식민 시대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 2. 미두장 : 합법적 도박과 착취의 상징적 장소성

금강과 군산이 물질적 환경적 요소로서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장식했다면, 『탁류』의 인간 활동의 이야기는 바로 군산의 심장인 미두장(미곡취인소의 일컫는 말)에서 시작된다. 군산의 항구에 인접한 대동맥의 사거리에 위치한 종탑 모양의 미두장의 건물(그림 4)은 당시 『탁류』에서 군산의 재화의 상징이면서 도박장이라는 장소성으로 대변되는 곳이다. 1932년 조선취인소령에 따라 인천에만 있던 미곡취인소가 군산에도 승인되면서 전주통(全州通) 22번지에 개설되었다(그림 4). 『탁류』에서 미두장의 장소성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미두장은 군산의 심장이요, 전주통(全州通)이니 본정통(本町通)이니 해안통(海岸通)이니 하는 폭넓은 길들은 대동맥이다. 이 대동맥 군데군데는 심장 가까이, 여러 은행들이 서로 호응하듯 웅위하고 있고 심장 바로 전후 좌우에는 중매점(仲買店)들이 전화줄로 거미줄을 쳐놓고 앉아 있다. (1983:12)

말 그대로 미두장은 군산의 조선은행과 18나카사키 은행을 비롯해 전주통 네거리에 자리한 군산의 상징적

중심지이다. ‘쌀의 군산’, 그 중심의 저변에는 바로 일본의 전통 현물시장인 미곡취인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 쌀의 합법적 착취 수단으로서 식민지 지배의 보이지 않는 경제적 제도이면서 장치이다.

일본 자신들의 오랜 전통의 거래방식을 도입한 미두장을 군산과 인천에 세웠다. 이런 거래방식에 무지한 조선인의 요행적 시각과 시대적 한탕주의가 결합되면서 여기에 몸 바치는 불나방들을 노리는 이중적이면서도 교묘한 착취와 도박에 가까운 거래가 도시 한복판에서 합법적으로 펼쳐진다. 채만식은 『탁류』를 통해서 어떤 소설보다도 미두의 현실과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당시의 미두장이라는 장소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재현하고자 한다.

원래 미두(米豆)라는 말은 원래 쌀의 품질과 가격 표준화를 명분으로 현재의 쌀 가격을 기준으로 미래의 쌀 가격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일본전통의 선물거래방식으로 미곡취인소 또는 기미시장(期米市場)이라 한다. 미두는 일본도 그러듯 이것은 지금의 선물거래와 마찬가지로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투기 행위에 가깝다. 군산의 미두 시세는 1700년대부터 미두취인소가 존재했던 일본의 오오사카의 시세와 동일 시간대로 연결되어 있다. 사실 종속된 것이다. 이러한 장소의 국제관계성을 소설에서 잘 묘사되어 현실성을 보여준다. 군산의 미두꾼들은 점과 운수만으로 전형적인 고수의 고위험의 투자거래를 하면서 도박성을 끌려가는 한탕이라는 욕망의 장소성이 구축되고 도박의 상징화가 나타난다. 이는 공적 공간이지만 허용된 개인들의 참여가 허용된 합법적 도박장소



(a) 1930년대 군산 해방로  
(오른쪽 솟은 건물이 미두장이고 왼쪽의 삼각지붕이 조선은행이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20년 9월 24일자.



(b) 미두장의 내부를 그린 삽화

출처 : 조선일보, 1937년 11월 12일자 『탁류』의 삽화.

그림 4. 당시의 미두장의 모습과 거리 그리고 미두장 경매 모습

이다. 도박 결과의 책임은 개인의 운수로 돌리면서 도덕성까지도 지우게 되는 사적 공간으로 인간 활동이고 생업의 장소이다. 하지만, 궁극의 미두 거래에 의한 총체적 이득은 미두를 주무르는 배후 일본의 세력에 합법적 착취를 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미두가 갖는 합법적 장소이면서 도박의 장소성이다.

따라서 미두장에서의 도박은 작든 크든 중독성을 갖게 되어 인간 욕망의 무절제성을 드러내는 장소가 된다. 정주사의 독백을 통해서 『탁류』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내가 내간놈의 테를 다시는 발걸음인들 하나 보아라.”  
정주사가 제 무렵에 빠져, 미두장끼로 대고 눈을 흘기면서 이런 배찬 소리를 한 것도 실상은 그 당장뿐이요, 바로 그이튿날도 갔었고, 그 뒤에도 매일 가서 하바도 하고, 어칠비칠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미두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방 탐탁부리 한참봉네 싸전가게에 들른 참이다.

(1983:97)

미두장은 1896년 인천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 그 앞 축현역의 작은 연못이 미두꾼들의 통한의 눈물이 고여서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1920년대 반복창이라는 사람이 한번 미두에 30만원을 버는 신화적 투기(동아일보, 1926년 1월 22일자)가 일 정도로 조선 전국은 한때 미두 광풍이 일었다. 하지만 작황이나 시세 정보, 그리고 통신망의 차이로 조선의 미두 자본은 대부분 미두장으로 빨리 들어갔다. 인천 미두장 앞 축현역의 작은 연못이 미두꾼들의 통한의 눈물이 고여서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두장은 인간의 욕망이 모이는 곳이자 일종의 식민지 합법적 수탈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이러한 미두에 의한 피폐한 조선인의 삶을 『탁류』에서는 ‘고태수’와 ‘정주사’의 도박 행위를 통해 묘사된다. 『탁류』는 이 미두에서 대해서 (<... 생애는 방안지라> 장을 할애해 자세히 묘사한다(그림 4).

즉, 미두장에서는 활발하게 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선적되며 결정되는 시세에 따라 일본으로 반출된다. 군산의 미두장을 “치외법권이 있는 도박꾼의 공동조계(共同租界)요 인색한 도박도시 몬테카를로”와 같은 도박장과 같은 장소성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목숨을 거는 절대절명의 도박이 아니라는 점에서 겨우 운이나 재수에 기대하는 전근대적 사고와 투기 방식으로 미두에 덩벼드는 주체 못하는 도박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조금치라도 관계나 관심을 가진 사람은 시장(市場)이라고 부르고, 속한(俗漢)은 미두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간판은 ‘군산미곡취인소(群山米穀取引所)’라고 써붙인 ××도박장(賭博場).

집이야 낡은 목제의 이층으로 험수룩하니 보잘것없어도 이곳이 군산의 심장임에는 갈데없다.

여기는 치외법권이 있는 도박꾼의 공동조계(共同租界)요 인색한 몬테카를로다. 그러나 몬테카를로 같은 곳에서는, 노름을 하다가 돈을 몽땅 잃어버리면 제 대가리에 다 대고 한방 탕— 쓰는 육혈포 소리로 저승에의 삼천 미터 출발신호를 삼는 사람이 많다는데, 미두장에서는 아무리 약삭빠른 전 재산을 톨톨 털어 바쳤어도 누구 목 한번 매고 늘어지는 법은 없으니, 그런 것을 조선 사람은 짐작아서 그런다고 자랑한다든지!

군산 미두장에서 피를 구경하기는 꼭 한 번, 그것도 자살은 아니다.

(1983:58)

그러니까 투기사(投機師)는 ××××가 살인강도나, 옛날 같으면 권총사건 같은 것이 생기기를 바라듯이 김만평야의 익은 벼목에 우박이 쏟아지기를 바라고, ××이나 ××이 지함(地陷)으로 돌아 빠지기를 기다린다.

(1983:59)

『탁류』는 미두장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조선이 미두장을 통해서 얼마나 합법적인 탈취를 당하는지에 대해 그린다. 쌀을 매개로 한 도박의 행위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조선인의 거래행위가 욕망에 근거한 도박일 뿐임을 소상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삽화를 제시하고 있다(그림 4). 당대뿐 아니라 현 시대 독자들도 당시의 미두 행위를 현상학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다.

후장삼절(後場三節).....

아래층의 ‘홀로 된 ‘바다지석 [場立席]’에는 각기 중매점으로 온 두 사람씩의 ‘바다지(場立: 중매점의 시장 대리인)’들과 ‘쪼쓰계(場附)’라고 역시 중매점에서 한 사람씩 온 서두리꾼들까지, 한사십 명이나 미침대기하듯 모여 섰다. 같은 아래층을 목적으로 바다지석과 사이를 막은 ‘가쿠다마리’에는 손님들이 한 백 명 가량이나 되게 기다리고 있다.

(1983:59)

흔히 미두를 하는 사람은 당시 기미꾼, 미두꾼, 미두장이라 불렀다. 미두꾼의 경우에는 밀천을 가지고 투기를 하지만, 미두꾼이 돈 떨어져 전략한 하바꾼(일명 절치기꾼)은 밀천도 없이 투기하는 하수들을 일컫는다. 정주사 역시 이러한 하바꾼이다. 이들은 미두로 전 재산을 탕진하여, 공식적으로 미두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사람들로 미두장이나 중매점 앞을 배회하며 미두장에서 하루의 절이 바뀔 때마다 그 시세를 알아맞히는 내기를 하는 줌스런 사람들이다.

바로 정주사는 그런 하바꾼의 노릇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것이다. 당하는 그곳이 군산의 십장이고, 도박의 상징 장소인 미두장의 앞 네거리이다.

정주사는 시방 미두장 앞 큰길 한복판에서, 다 같은 ‘하바꾼(절치기꾼)’이로되 나이 배짱은 애송이한테, 떡살을 당시랴게 따잡혀 가지고는 죽을 봉욕을 당하는 참이다.

(1983:12)

미두와 관련된 실패의 장소, 상실의 장소, 죽음을 사유하는 장소성이 나타나는 곳은 군산항의 선창이다. 봉변을 당한 정주사가 미두장에서 당시 푸른 지붕의 조선은행 쪽 네거리로 향하다 집과는 반대편인 왼편 선창가로 향한다. 하지만 결코 그런 죽고 사는 결단이 오가는 선창가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재수를 잠시 한탄하는 장소일 뿐이다. 미두쟁이들이 울기들은 잘한다는 미두꾼들의 공감성이 있지만, 그저 강물에다가 눈물이나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고작일 것이라는 미두꾼들의 조롱이 있다. 정주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저 영감 자살하고 싶은가 봐?”하고 비웃듯 돌아서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선창가는 그와 관계없이 번잡한 장소성을 보여준다. 개인의 삶과 무관하게 기선이 오가고, 고깃배가 드나들고, 짐꾼들의 움직임과 바쁜 숨소리만 가득한 무성의 장소로 그려진다. 그들의 미두장의 하층 하바꾼들의 삶의 소모와는 무관하게 객관의 공간으로 선창가는 여전히 있다. 그러면서 잠시 소란과 회한의 장소성은 장소의 일상성으로 바뀌게 된다.

결국, 미두의 책임은 개인이 지는 사적 장소이면서 이윤의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배후 일본의 세력으로 착취되는 합법적이면서 묘사된 실제적 장소성을 보여준다. 소설 『탁류』에서 한 물건 정주사의 뇌리에 박힌 미두의 도박성과 함께, 은행원 고태수의 부정과 미두 한탕주의

식 투자, 미두 거간꾼 장형보의 사기 행각 등이 점철되면서 파멸의 단서를 가진 소설의 사적 공간으로 장소성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 3. 거주지와 집의 장소성 : 의미와 상징

#### 1) 조선인의 거주지, 둔뻬미

군산의 공간적 변화는 일본의 식민지 전략에 맞추어 도면화되고 축조되었다. 당연히 식민도시 군산은 일본인 거주지와 조선인 거주지는 일제 강점 시작부터 차별적으로 구획되었다. 군산은 시내 동녕고개 네거리 경찰서를 경계로 하여 서편 월명산 아래의 근대적 도시 구획 정리로 격자형 시가지가 현재도 뚜렷이 나타난다. 이곳은 위생적이면서 정갈한 사회 문화적 인프라가 우선 깔리면서 지배적 문명 공간이라는 장소성으로 묘사된다. 반면 토착민과 이주노동자들이 몰려 사는 조선인 거주지인 개복동, 구복동의 둔뻬미 등 군산의 동편은 낮은 지붕에 바짝 서로 밀집된 토막집들이 마치 계막지처럼 밀집되어 있다. 토막집과 정비되지 않은 시구와 비위생적 환경으로 거주 공간이 확연하게 구분되면서 장소성이 대별된다(그림 5).

이런 조선인 거주지 둔뻬미의 장소성을 『탁류』는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정주사는 요새 정거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새로 난 소화통이라는 큰길을 동쪽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바른손편으로 꺾이어 개복동(開福洞) 복판으로 들어섰다. 예서부터가 조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지금은 개복동과 연결된 구복동(九福洞)을 한테 버무려 가지고, 산상정(山上町)이니 개운정(開運町)이니 하는 하이칼라 이름을 지었지만, 예나 시방이나 동네의 모양다리는 그냥 그 대중이고 조금도 개운(開運)은 되질 않았다. 그저 복판에 포도장치(鋪道粧置)도 안한 십오 간짜리 토막길이 있고, 길 좌우로 연달아 평지가 있는 등 마는 등하다가 그대로 사뭇 언덕비탈이다.

그러나 언덕비탈의 언덕은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는다. 급하게 경사진 언덕비탈에 계막지 같은 초가집이며 낡은 생철집 오막살이들이, 손바닥만한 빈틈도 남기지 않고 콩나물 길듯 다닥다닥 주어 박혀, 언덕이거니 짐작이나 할 뿐인 것이다. 그 집들이 콩나물 길듯 주어 박힌 동네 모양새에서 생긴 이름인지, 이 개복동서 그 너머 둔뻬미 [屯





(a) 둔뱀이 토막집과 골목길

출처 : 조선일보, 1937년 11월 10일자 「탁류」의 삽화.



(b) 1920년대 군산 둔뱀이 고지대와 평지의 명산동 일대

출처 : 오마이뉴스, 2016년 3월 30일자.

**그림 5. 둔뱀이의 가옥과 골목 그리고 대비된 주거지 모습**

栗里) 로 넘어가는 고개를 콩나물고개라고 하는데, 실없이 제격에 맞는 이름이다.

개복동, 구복동, 둔뱀이 그리고 이편으로 툇 떨어져 정거장 뒤에 있는 ‘스래 [京浦里]’, 이러한 몇 곳이 군산의 인구 칠만 명 가운데 육만도 넘는 조선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깨를 비비면서 움닥움닥 모여 사는 곳이다. 면적으로 치면 군산부의 몇십분지 일도 못 되는 땅이다”

그뿐 아니라 정리된 시구(市區)라든지, 근대식 건물로든지, 사회시설이나 위생시설로든지, 제법 문화도시의 모습을 차리고 있는 본정통이나, 전주통이나, 공원 밑 일대나, 또 넉지시 월명산(月明山) 아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주택지대나, 이런 데다가 빗대면 개복동이니 둔뱀이니 하는 곳은 한 세기가 뒤떨어져 보인다. 한 세기라니, 인제 한 세기가 지난 뒤라도 이 사람들이 제법 고만큰이나 문화다운 살림을 하게 되리라 싶질 않다.

(1983:20-21)

등장인물 정주사의 집은 형편에 따라 도시빈민들의 일상처럼 여러 번 옮겨진다. 서천에서 이주 초기 큰샘거리(대정동)에 집을 사서 살았으나 점점 삶이 궁핍해지면서 개복동에서도 가장 빈한한 언덕 꼭대기 ‘둔뱀이로 옮겨 갔다. 군산에서의 꿈은 꺾이고 조선인 빈민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한계에 갇힌다. 이는 변화된 식민 시대의 사회와 생활의 부적응성에서 야기되는 거주 의 뿌리뽑힘이고 소외의 장소성이다. 집이란 정주사처럼 미두장의 봉변을 당하고도 죽을 수도 없는 한계에 갈 수 밖에 없는 그곳, 허름하지만 마지막 안식처라는 장소

를 제공해주는 것이 집이다. 둔뱀이를 가기 위해 가파른 콩나물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집은 그래도 안식과 안전의 장소성을 갖는다. 이 집과 주변 장소의 변화와 그 불안한 장소성을 이렇게 묘사한다.

〈둔뱀이〉는 개복동보다도 더하게 언덕비탈로 제비집 같은 오막살이 집들이 달라붙었고, 올라가는 좁다란 골목 길은 코를 다치게 경사가 급하다.

〈흙구더기〉까지 맞닿았던 수만 평의 논은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집이 들어앉고 그 한복판으로 이 근처의 집 곱락서니와는 얼리지 않게 넓은 길이 질펀히 뻗어 들어왔다. 그놈을 등 너머 신흥동으로 뻗으려고 둔뱀이 밑구멍에 굴을 뚫을 계획이라는데, 정주사네 집은 바로 그 위에 가서 올라앉게 되었다. 그래 정주사는 굴을 뚫다가 그놈이 혹시 무너져서 집이 풍당 빠지거나 하는 날이면, 집이 야남의 셋집이니 상관없지만 집안의 사람들이 큰일이라고 슬며시 걱정이 되는 때도 있다.

(1983:44)

또 다른 실증 자료를 통해서도 두 주거지 공간의 장소성은 전혀 다르게 인식된다. 실제 군산의 보다 사실적인 묘사는 동아일보 기사(오마이뉴스, 2016년 3월 30일자 재인용)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보라! 개복정(개복·창성동), 약송정(개복·선양동), 산상정(선양동), 둔울정(둔울동·둔뱀이) 일대를! 그 중에도 고지대를! 다시 말하면 조선인 빈민지대를! 거러마



다 오물이 산적하여 있으며, 변소의 분뇨가 도로에 일류(溢流)하여 통행인으로 하여금 코를 들지 못할 지경이오. 눈으로 그것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몸소름이 나게 될 때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손실이며 위생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동아일보, 1936년 8월 20일자)

『탁류』에서는 정주사의 외부적 인식과 삶의 경험을 통해 묘사되어 있지만, 객관적인 신문기사는 일제가 구축한 일본인 거주지인 신흥동 평지는 근대 문화 공간의 위생적 장소로 그려진다. 반면, 고지대 구릉지는 전국 최고의 계막지같은 토막집의 달동네로 비위생적 장소로 장소성을 그려진다. 이렇듯, 식민지의 체계적인 도시 정비의 지배자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당시 군산의 빈민촌 조선인들은 실업자 아니면 부두 노동자, 지계꾼, 매갈잇간(도정공장) 인부, 정미소 미선공(米選工), 인력거꾼 등 하층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제한된 주거 공간에 밀집되었다. 이런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지배민의 공간은 도심 근처의 대체로 관리가 어려운 고지대 구릉지에 콩나물시루처럼 밀집되어 있다.

더구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토막집에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 흡사 계막지같이 보일 정도이다. 길은 손을 뻗으면 맞닿을 정도이다. 거기에다 고지대의 산사태나 오물과 분뇨의 비위생적 처리에 따른 낙후된 전근대적 공간으로 낙인된다. 『탁류』는 이런 공간의 장소성을 인식 지명과 대비시켜 잘 드러내고 있다. 근대화 공간 속에 한 세기나 뒤떨어진 근대화되지 않은 이질적인 공간이 중첩된 군산은 파편화, 위계화가 구조화되면서, 인간의 공간적 소외를 경험케 하는 장소성을 갖는다. 이처럼 당시의 아노미나 소외와 같은 문제들은 인간과 그가 속한 장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정주사의 집보다 더 험한 집의 구조와 생활을 보여주는 개복동 고지대의 거주 장소성도 역시 『탁류』의 묘사에서 나타난다. 가난도 등급화되어 있고, 장소성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의사 지팡생이면서 가장 인간적인 인물인 남승재를 통해서 1930년대 중반의 당시 처절한 빈민의 가옥과 삶의 실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언덕 비탈을 의지하여 오막살이들이 생선 비늘같이 들 어박힌 개복동, 그 중에서도 상상꼭대기에 올라앉은 납작한 토담집.

방이라야 안방 하나, 건넌방 하나 단 두 개뿐인 것을 명남(明姪)이네가 도통 오월에 집주인한테서 세를 얻어가지고, 건넌방은 따로 '떡곰보'네한테 이 원씩 받고 세를 내 주었다.

대지가 일곱 평 네 홉이니, 안방 세 식구, 건넌방 세 식구, 도합 여섯 사람에게 일곱 평 네 홉인 것이다.

(1983:86)

이렇듯 둔빔이는 군산 하층민의 삶이 존재하는 생활 공간이면서 위생들 시설이 낙후되고 빈한한 장소성을 보인다. 하층민들이 삶을 숨 쉬고 이어가지만 끝없는 궁핍과 굶주림으로 생명에 대한 미신적 속성이나 딸을 자산화하는 지극히 전근대적 장소성으로 그려진다. 논리로 말하자면 여기는 자본주의와 식민 지배 논리가 공간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주 장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집의 장소성 : 장소상실

집은 건축물이라는 물질적 환경이면서 기능상 구성원들의 설정된 관계에 따라 상호적으로 인간의 생활 경험이 전개되는 기본요소로서의 공간이고 장소이다.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집을 이루는 건물 구조와 사물간의 배치가 아니다. Tuan(1978)이 말한 것처럼 오랜 된 가옥이며 오래된 이웃이고 고향이며 조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소설 『탁류』의 집은 오래되지도 않았으며, 오래된 이웃을 가지지 못했고, 고향의 집도 아니고 빼앗긴 조국으로서 역시 집이라 할 수 없다. 이미 『탁류』에서 집은 일시적이며 정착화된 장소애를 갖지 못한 부유하는 이주자들의 장소상실이 드러난 장소성을 보인다. 그들 일부에게는 집은 생물학적 필요가 충족되는 부분일 뿐이다. 인간주의지리학에서 말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나 가족이 관계, 경험, 기억, 의도를 통하여 장소의 애착이 신체화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곳으로서 『탁류』의 집이다. 여기서는 Seamon(1979)이 말한 집의 고유한 성질로 심리적 정착성, 소유와 관리의 전유성, 정신적·육체적 회복성, 심신의 편안함 및 정신적·육체적 따뜻함은 없다. 다만, 일시적이고 불안정성 상태와 미래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식민 시대를 사는 우리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는 억압과 자유의 한계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의 조선인은 일시적으로 집이 있되 있어도,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내적 장소의 상실성과 갈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등장인물 중 고태수나 장형보와 같은 뜨내기 이주자들은 집이란 장소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장소성으로서 장소상실의 주체들이다. 『탁류』의 정주사는 그와 달리 조상이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 서천을 지금보다 나은 집이라고 기억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집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주사는 현실의 공간에서 죽을 수도 없는 자신이 세운 처지 때문에 결국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면서, 집을 “언제 갈 데라야 곳으나 좋으나 집뿐”이라면서, 최종 돌아갈 상징과 의미의 장소로 집을 바라본다.

그는 열두 해 전 용맹이 [龍塘] 에서 가권을 거느리고 저렇게 똑딱선으로 건너오던 일이 우연히 생각났다. 곰곰이 생각은 잦아지다가, 그래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나았느니라 하면, 옛날이 그리워진다. 이윽고 기름기 없는 눈시울로 눈물이 핀다.

(1983:17)

경험을 통해 집은 또 다른 장소성을 갖는다. 집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다. 필연적인 관계를 통한 일차집단인 관계의 공간이다. 서로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서로의 요구와 욕구의 충돌이 일어나는 희노애락의 공감대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중층적이면서 다원적인 장소성을 갖기 마련이다. 초봉이가 고태수와 결혼하여 입주한 첫 신혼집에서 둔뽀이 집과 대비하면서 집의 장소성을 이렇게 회상한다.

그래 그래, 나는, 정말 초봉이는 시방도 저 너머 '둔뽀이' 우리 집에 있다. 맨 먼저 일어나서 시방 모당 빗자루로 토방을 쓴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을 짓는다. 안방에서 병주가 사탕을 사달라고 아버지를 졸라댄다. 어머니는 여태 자고 있는 계봉이더러 부엌에를 들어가지 않는다고 나무람한다. 짜악 소리없던 뜰 아랫방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만에 두뽀이 승재의 커다란 몸뽀이가 대문간으로 걸어나간다.

(1983:149)

또한 초봉이에게 집은 일말의 인식적으로 외부세계와 단절된 물질적 공간이고, 사적 세계의 공간으로 하나의 영역과 장소성을 보여주는 대목도 나타난다. 가족의 희

생양인 된 결혼에서 받아들여진 신혼집은 초봉이에게 보아도 그만, 안 보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둔뽀이 집과는 전혀 다른 장소감을 갖는다. 신혼집은 둔뽀이가 아닌 새길 소화통(昭和通)이 뺏어나간 뒤꼍으로 예전 '큰샘거리'의 북판계 가서 바로 길옆에 나왔은 집이다. 훨씬 시내이고 평지에 가깝다. 밖에서 보기에도 추녀며 기둥이 낡지 않은 것이, 그리 묵은 집은 아니고, 대문으로 들어서면서 장독대가 박힌 좁지 않은 뜰 앞이 우선 시원스러웠다. 좌는 동향한 기억자요, 대문을 들어서면 부엌이 마주 보이고 부엌에 연달아 안방이 달리고 마루와 건넌방이 왼편으로 꺾여 있다. 그리고 뜰아랫방은 부엌 바른편에 달려 있다. 결국 그 집은 어설프기는 어설프도 집으로서 선뜻 초봉이의 마음에 들었던 차이의 장소성을 드러낸다. 집에 대한 속내는 이렇게 표출된다. 초봉이는 집이라는 장소를 통해 자신이 남으로 여겨지는 타자화된 분열적 자의식을 보이면서도 오히려 흡족해하는 편이다.

그것은 이 집이 그다지 훌륭한 집인 줄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둔뽀이 집에 빗대어 보면 훨씬 더 높고 뚜렷한 게, 속이 답답하지 않은 때문이다.

(1983:143)

가벼운 경이의 눈으로 방 안을 둘러다본다. 덧문을 닫지 않은 위아래 앞문과 뒤창이 다 같이 희유히 밝으려고 하는데 파이란 덮개를 드리운 전등은 아직 그대로 켜져 있다. 양지로 바른 위에다가 분을 먹여 백지로 덧발라 놓아서, 희기는 희되 가볍지 않고 침착한 바람벽, 윗목으로 나란히 놓인 양복장과 삼층장의 으리으리한 윤탁, 머릿장, 머릿장 위에 들מות하게 놓인 금침 꾸러미, 축음기 등속 모두 가눈에 생소한 것이면서 그러나 어젯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보았던 그것들 그대로다.

(1983:148-149)

초봉이에게 집안의 꽃이나 식물은 새로운 사물로서 장소성의 형성에 기여한다. 새로운 배치를 통한 꽃밭은 점차 초봉 자신만의 장소로 변해 간다. 인간의 사고와 경험은 근본적으로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토대를 둔다는 메를로퐁티의 주장처럼 초봉이에게도 꽃밭이라는 장소는 집에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새로운 물질적 토대이자 구체적인 장소감을 주는 장소성을 갖는다.

어쩌면! 꽃밭이 있어! 하면서 마당 귀퉁이로 뛰어간다. 아닌게 아니라, 전에 살던 사람의 알뜰한 맘씨인 듯싶게 조그마한 화단이 무어져 있고, 백일홍과 봉선화와 한련화가 모두 망울망울 망울이 맺었다. 코스모스도 서너 포기나 한창 자라고 있고, 화단 가장자리로는 채송화가 아침에 피었다가...(중략)...초봉이는 마음 간으로는 지금이라도 꽃들을 추어 올리고, 아사가오도 줄을 매주고 이렇게 모두 손질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차마 못하고 돌아서면서, 집을 들면 그 이튿날 바로 이 화단에 먼저 손을 대주리라고, 꼬옥 염망을 해두었다.

(1983:144)

초봉이는 이끌리듯 신발을 걸치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밤이 아니고 밝은 새벽, 그러나 인적이 없는 정적의 틈을 타서 홀로 마당도 걷고, 화단에 손질도 해주고, 하늘도 우러러보고 하는 것이 결혼 이후로 초봉이에게는 매우 사랑스러운 세계였다...(중략)...

초봉이는 꽃포기마다 들여다보고 다니면서 밤 사이의 인사나 하는 것같이 웃어 보인다. 그는 사람에게 생소한 정을 먼저 꽃한테다가 들이던 것이다.

(1983:151)

이처럼 새로운 장소는 낯설지만 일단 정착하여 자신의 경험과의 관계를 장시간에 걸쳐 형성하면 자신과 가족은 집에서 장소 안이라는 안전감이나 친숙감의 장소성을 갖게 된다.

이것이 고 저것이고 간에 흥분도 없으려니와 불평도 없이, 일하다가 마음을 붙여서 새롭게 '사람' 노릇을 하기에 골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집이라는 장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이란 장소와 결합될 수 있다. 이처럼 집은 인간에게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구조로 작용하는 구조 계기인 장소성을 갖는다.

이러한 집의 장소성은 스케일을 달리하여 서울집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서울은 새로운 선망의 공간이고 문명의 공간이다, 자신들의 과거의 이력을 의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장소이고 새로운 장소성을 지닌 공간으로 묘사된다. 초봉이에게 서울집은 새로운 안식처로 자리하지만 궁극에는 새 생명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은 낙태와 처절한 절망의 장소성을 드러낸다. 이내 새 생명성을 출현한 딸 송희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초봉이는 이전과는 다른 극도의 장소애의 장소로 바뀐다. 하지만

결국, 장형보라는 인간에 의한 안전과 생명의 위협성이 닥치고, 믿었던 박재호의 위선이 드러난 장소로서 집은 초봉이에게 장소상실을 경험한다.

자살이라는 개인적 파멸을 예고하는 무거운 분위기를 소설에서는 '글루미선데이'로 은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끝까지 악의 상징인 장형보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파멸에서 불안과 해방의 양가성을 느낀다. 이러한 새로운 사건의 장소인 집은 새로운 삶의 여정을 담보하는 눈빛에서 희망의 장소성화하는 암시가 나타난다. 이 장 제목이 바로 '서곡'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렇듯 집은 편안과 휴식의 장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증의 겹쳐지고, 운명적 계기로 재구성되는 다양한 장소성을 드러내지만, 이 소설은 이를 극적으로 대비하고 반전시키는 장소성을 구가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장소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거쳐 연구 방법과 과정에서 제시한 소설 『탁류』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세 가지 장소의 요소인 물질적 환경, 인간활동,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관련된 장소성을 공격 및 사적 경험의 장소성을 고찰하였다.

이중 군산은 금강의 하구역에 자리하고 소설의 전반에 걸친 물질환경이면서 다양한 장소성을 내포하고 있다. 금강은 단순한 강의 서술이 아니라 '탁류'를 상징하는 소설의 주제를 표상하는 키워드이면서 암묵적으로 역사성과 당대의 혼탁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지리적인 외부성과 내부성을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서사이면서 장소성을 가장 잘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설의 중심 무대인 군산은 통상 '쌀의 군산'이라는 대표적 장소성으로 상징화되었지만 자연 자체의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순수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식민 시대의 개발과 활발한 경제 발달이라는 허울 속에 끝없이 구조화되는 이중의 공간으로 장소성을 갖는다. 특히 개항되자마자 일제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 계획적으로 시가지가 구축되는 조선 사람들의 공간과 장소적 갑갑한 호흡이 이어지는 이중공간으로 식민성을 대표하는 장소성을 드러낸다. 또한 군산은 토착민의 궁핍한 생활상에서 오히려 '쌀의 빈곤'이라는 대비적 장소

성을 보여준다. 또한 군산의 외부성을 갖는 이주민들의 기획의 땅으로 인식하는 꿈의 장소라는 식민시대의 장소상실이라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쌀을 입도선매하는 일본 특유의 거래방식을 도입한 미곡취인소 일명, 미두장은 쌀의 합법적 반출과 이윤을 착취하는 거래소이다. 이 과정에서 끝없이 희생당하는 미두꾼들의 현실성과 무모한 행태의 도박성을 매우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묘사하여 당시 군산의 심장으로 상징화되는 장소성을 잘 보여주었다. 결국, 미두의 책임은 개인이 지는 사적 장소이면서 이윤의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배후 일본의 세력으로 착취되는 합법적이면서 묘사된 실제적 장소성을 보여준다. 소설 『탁류』에서 한 물간 정주사의 뇌리에 박힌 미두의 도박성과 함께, 은행원 고태수의 부패성과 한탕주의식 미두 투자, 미두 거간꾼 장형보의 사기 행각 등이 점철되면서 파멸의 단서를 갖는다. 미두장은 이미 장소상실이 나타난 소설의 사적 공간으로서의 장소성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또한 인간의 기초적인 토대이면서 단위인 거주지와 집을 통해서는 거주지의 이중성에 따른 문화적 차이와 비위생성 등의 장소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거주 실태를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그 불안한 장소감에 장소상실로 이어지는 장소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돈뽀이는 군산 하층민의 삶이 존재하는 생활공간이면서 위생시설이 낙후되고 빈한한 장소성을 보인다. 하층민이 삶을 숨 쉬고 이어가지만 끝없는 궁핍과 굶주림으로 생명에 대한 미신적 속성이다 딸을 자산화하는 지극히 전근대적 장소성으로 그려진다. 논리로 말하자면 여기는 자본주의와 식민 지배 논리가 공간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주지의 장소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은 편안과 휴식의 장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증의 겹쳐지고, 운명적 계기로 재구성되는 다양한 장소성을 드러내지만 이 소설은 이를 극적으로 대비하고 반전시키는 장소성을 구가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거주와 집에서의 편안보다 불안전성과 장소상실로 이어지는 장소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등장 인물들에게는 군산은 거주와 집을 통해서 장소에보다 장소상실을 드러낸 공간의 장소성을 더 보인다. 따라서 고태수, 한참봉 부부, 장형보 등 등장인물들이 부유하는 장소성으로 인식처로서 안주하지 못하고 욕망과 부패라는 부정성의 삶을 살다가 파멸을 맺는 공간으로 장소성을 보여준다. 이런 장소성은 궁극적으로 식민지의

울타리라는 유리천장에서 갑갑한 호흡을 하는 자들의 울분과 불안의 증상이다. 반면 군산을 떠나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의 공간으로서 서울은 역시 괴롭고 어두운 기억들 즉, 고역의 경험과도 밀착되면서 불안전한 장소감과 장소상실을 여전히 드러낸다. 하지만 궁극의 장소상실 대신 모든 것을 파국으로 끝을 맺고 새로 시작하는 서곡이 나타나는 희망적 미래의 장소성을 암시한다. 작가의 정교한 픽션은 여기서 그 결말을 파멸의 끝이 아닌 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동생 계봉이와 의사 남승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초봉이의 희망적 눈빛으로 가름한다는 점에서 장의 제목처럼 새로운 서곡의 공간성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탁류』는 하층민의 비극적이면서 풍자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단 한 줄의 일본을 언급하거나 자극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소적 텍스트의 배치와 암시를 통해서 당시를 살아가는 비극적 식민지 삶에서도 궁극적인 희망의 장소를 그리고 있음을 암묵적 텍스트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다. 즉, 작가 채만식은 1936년부터 옛 서울인 송도에 내려가 조선일보 연재 이전에 이미 작품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군산의 작가의 기억 속에서 재생된 기억의 장소로 서술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약 7개월간 198회를 연재하면서 당시 유명한 화백 정현웅의 실감나는 경관이 드러나는 삽화와 함께 장마다 「인간기념물」에서 「서곡」까지 19개의 장 제목을 붙여서 작가의 키워드를 읽게 하였다. 이러한 메시지의 암묵성을 파악한 일본은 연재 이후 발간된 『탁류』를 판매 중지시켰다. 왜 그랬는지는 작품을 다 읽고 난 이후 말할 수 없는 느낌으로 받을 수 있다.

『탁류』는 장편소설로 문학작품이지만, 실제 지명과 당시의 지리적 현실성을 매우 자세하게 기술하고, 인간 개개인의 경험을 통해 많은 장소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학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서두의 금강에서부터 말미의 초봉이의 서울집까지 서사가 지리적 공간과 장소의 연계성을 통해 이어지고 전개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하나의 지역소설이지만 지역의 이해를 위한 지리적 자료이면서 많은 지리학적 조망과 장소성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본다.

끝으로 이와 같은 장소성들은 객관적이고 논리실증주의적 지리학 접근으로는 밝혀질 수 없는 의미와 상징을 드러내고 있다. 그간 문화지리학에서는 장소의 이론적 접근이나 경관의 분석이나 논리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문학 텍스트 속에서 지리적인 독해를 해보는 것이 문학지리학의 지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구체적인 문학의 텍스트 속에서 다양한 지리학적 비평을 기대한다.

註

- 1) 자주자주
- 2) 19세기 말에 태어나 20세기 초에 사망한 프랑스 해군 의사이다. 그의 경력은 민족학자, 고고학자, 작가, 시인, 탐험가, 미술 이론가, 언어학자 및 문학 비평가 등 다채로운 이력과 경험의 소유자이다.

참고문헌

강효민, 2021, “고전소설에 형성화된 평양의 장소성에 대한 문학지리 교육방안 연구 : <이춘풍전>, <옥단춘전>, <채봉감별곡>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성혜, 2016, “가사의 장소성 연구 : 호남가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혁래, 2016, “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우리문학연구, 51, 167-197.

규장각, 1872, 지방도 「군산진」.

김덕현, 1999, “삶의 질을 위한 경관 독해 ‘자연미’와 ‘장소성’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시론”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초록집, 23-37.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Relf,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김진영·신정엽, 2010, “문학 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공간 논의에 대한 재고찰” 지리교육논집, 54, 1-15.

문화재청, 2011, 「문화유산 이야기 마당 이! 장하다 군산의 쌀이여」, 540.

박세희, 2013, “1970년대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고향에 대한 토포포비아 연구: 김원일과 황석영의 소설을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57, 27-37.

박영은, 2017, “러시아 극동 한민문학의 정초(定礎)와 문학 지리학(literary geography)” 노어노문학, 29(4), 197-231.

박철웅, 2014, “도시답사에서 다감각적 경험을 통한 질적 접근

근”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2(2), 65-79.

박철웅, 2020, “경관 ‘장소’ ‘이미지’로서의 무등산 읽기” 한국지리학회지, 9(1), 67-89.

박홍규 역, 2011, 「문화와 제국주의」, 서울: 문예출판사(Said, E.W., 1993,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Books).

송지선, 2019, “문학지리학 관점으로 본 이용악 시의 지식인의 소명의식에 따른 고향 서울의 장소성 연구” 국어문학, 72, 341-368.

심승희, 2001, “문학지리학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토마스 하디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3(1), 67-84.

심승희, 2012,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 문학교육학, 37, 87-124.

심승희 역, 2012, 「장소」, 서울: 시그마프레스(Cresswell, T., 2004, Place : A Short Introduction, NJ: Blackwell Publishing).

오동훈, 2017, “문학지리학에 있어서 신문화지리 관점의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한용, 1997, 「채만식 탁류-우한용 해설·주석」,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고전총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동민, 2019, “일본 문학에 재현된 조선계 도공의 고향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접근 시바 료타로의 소설 『고향을 어이 잊으리까(故郷忘れがたく候)』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1(1), 98-115.

이동민, 2020, “김사량의 소설 『물오리섬』에 대한 문학지리적 연구” 문화역사지리, 32(1), 191-210.

이은숙, 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학역사지리, 4(이찬박사 고회기념 특집호), 147-166.

이은숙, 1993, “文學作品속에서의都市景觀 蔡萬植의濁流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 1-27.

이은숙, 1996, “北間島景觀에대한朝鮮移民의이미자 崔曙海의단편소설을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 1-15.

이은숙, 1998, “1930년대 북간도 경관에 대한 조선이민의 공간인자: 박계주의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10, 39-54.

이은숙, 1999, “1930년대 북간도 지역에 대한 조선이민의 공간이미자: 이민소설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4(4), 419-434.

이은숙, 2010, “지리학 탐구대상으로서의 문학작품과 지리학 연구수단으로서 문학작품” 문화역사지리, 22(3), 146-153.

임형모, 2018, “고려인문학에 나타난 낯선 장소와 공간 연구

- 문화지리학으로 읽는 고려인문학” 한국문화와 예술, 25, 189-220.
- 채만식, 1983, 「탁류」, 서울: 창우문화사.
- 최민, 2019, “세갈렌과 중국의 인문화된 자연” 한중인문학연구, 62, 139-165.
-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 1995, “근대 유럽 문학의 지리적 소묘” 창작과비평, 23(1), 310-354.
- 홍성희·박준서·임승빈, 2011, “장소성 정의 및 개념 연구” 한국경관학회 학술발표대회, 2011(1), 39-52.
- 황지선, 2012, “채만식 소설의 역사 의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大城直樹, 2001, “「場所の力」の理解へむけて-方法論的整理の試み” 南太平洋海域調査研究報告, 35, 3-12.
- 文智恩, 2019, 20世紀前半における韓国・群山の市街地形成に関する研究, Doctoral Dissertation, 名古屋大学.
- 沖野岩三郎, 1923, 「薄氷を踏みて」, 大阪屋号書店, 113.
- Crag, M., 1988, *Cultural Geography*, Abingdon: Routledge.
- Bellentani, F., 2016, Landscape as text, in Higuera, C.J.R. and Bennett, T.J., eds., *Concepts for Semiotics*, Tartu: University of Tartu Press, 76-88.
- Daniels, S. and Rycroft, S., 1993, Mapping the modern city: Alan Sillitoe's Nottingham novel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8(4), 460-480.
- Duncan, J. and Duncan, N., 1998, (Re)reading the Landscap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6(2), 117-126.
- Hones, S., 2008, Text as It Happens: Literary Geography, *Geography Compass*, 2(5), 1301-1317.
- Lando, F., 1996, Fact and fiction: Geography and literature: A bibliographic survey, *GeoJournal*, 38(1), 3-18.
- Mallory, W.E. and Simpson-Housley, P., 1989, *Geography and literature: A Meeting of the Disciplines*,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Noble, A.G. and Dhussa, R., 2009, Image and Substance: A Review of Literary Geography,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10(2), 49-65.
- Olwig, K.R., 1981, Literature and 'reality': The Transformation of the Jutland Heath, in Pocock, D.C.D., ed., *Humanistic Geography and Literature: Essays on the Experience of Place*, London: Croom Helm, 47-48.
- Payne, F.O., 1898, *Geographical Nature Studies - For Primary Work in Home Geography*, NY: American Book Company.
- Pocock, D.C.D., 1981, Introduction: Imaginative Literature and The Geography, in Pocock, D.C.D., ed., *Humanistic geography and Literature: Essays on the Experience of Place*, London: Croom Helm, 9-19.
- Porteous, J.D., 1985, Literature and Humanist Geography, *Area*, 17(2), 117-122.
- Seamon, D., 1979, *A Geography of the Lifeworld Movement, Rest and Encounter*, Abingdon: Routledge.
- Tuan, Y.F., 1978, Literature and geography: implications for Geographical Research, in Lay, D. and Samuels, M.S., eds., *Humanistic Geography: Prospects and Problems*, Chicago: Maaroufa Press, 194-206.
- 동아일보, 1926년 1월 22일자, “어머니되기까지(二(이)) 한 번미두에 삼십만원만 부인”
- 동아일보, 1936년 8월 20일자, “지방논단, 위생계에 일언”
- 오마이뉴스, 2016년 3월 30일자, “아이들 수천명이 방황하는 마을, 군산이었다”
- 오마이뉴스, 2020년 9월 24일자, “일본인 지도에 표기되지 않은 군산 ‘해안통’ 그 이유가”
- 연합뉴스, 2018년 1월 6일자, “아픈 과거도 역사다... 식민지 유산이 바꾼 도시”
- 조선일보, 1937년 10월 8일자, “탁류(濁流) 어머니가 낳자 바로 본지(本紙)에 빛날 연재소설(連載小説)”
- 조선일보, 1937년 10월 12일자, “탁류(濁流)의 삽화”
- 조선일보, 1937년 11월 10일자, “탁류(濁流)의 삽화”
- 조선일보, 1937년 11월 12일자, “탁류(濁流)의 삽화”
- 교신 : 박철웅,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parkcw@jnu.ac.kr)
- Correspondence : Chul Woong Park, 61186, 77 Yongbong-ro, Buk-gu, Gwangju,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parkcw@jnu.ac.kr)

투고접수일: 2021년 7월 27일  
 심사완료일: 2021년 8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8월 23일